

아파트 후면 베란다의 이용실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Utilization of Apartment Rear Veranda

김수양 / Kim, Soo - Yang

Abstract

An Apartment Veranda is a transitive space which is being used for many different purposes. A Rear Veranda which is connected to the kitchen is an important space for the housekeeping work and it should be planned carefully to reflect the rational and functional designs. Therefore,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suggest a systematic basis for the practical space planning of the Rear veranda that meets the varied needs of consumers by examining its usage pattern through the analysis of the apartment occupant's behavior pattern, stored item, the degree of satisfaction, and consumer requirements. The research was conducted mainly on apartments built after 1990.

The following are the conclusions from the research:

1. Most of the research respondents were aware of the absolute need for the Rear veranda. But they expressed dissatisfaction with the space usage. This indicates that the Rear Veranda planning does not reflect the functionality of the space and concentrates on the idea of providing consumers a service space based on the size of the apartment instead.

2. Although the Rear veranda is used as the multipurpose housework space, it is mainly used as the laundry and storage space. This shows a big deviation from the concept of the utility space. Because the behavior pattern associated with the Rear Veranda is largely influenced by the traditional life pattern, the development of the Rear Veranda as an exclusive space for the housekeeping work.

3. According to a high frequency of the storage of the laundry related item in the Rear Veranda indicated by the research, the Rear Veranda is used as the laundry room as well as a auxiliary storage space by most people. The installation of gas range is expected to increase due to the expansion of the usage function of the Rear Veranda space. The installation of a specialized refrigerator to store the traditional food is demanded.

4. Consumers need more efficient and functional storage device because the temporary shelves are often being used as the storage device. The perception of the storage device is assumed to have been influence by the traditional life style.

키워드 : 아파트, 가사작업공간

1. 서론

1. 연구의 목적

6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사회 전반적으로 많은 변화가 발생되었다. 도시의 인구집중화, 핵가족화 현상은 주택난을 야기시켰고, 정부는 그 해결 방안으로 아파트 보급을 유도하였다. 아파

트는 단독주택에 비해 토지 이용률이 높고, 대량생산성과 기능성 등이 장점으로 부각, 일반인들에게 긍정적으로 인식되어 오늘날 새로운 주거 유형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그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될 전망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양적인 공급에만 치중되어 질적인 면은 등한시된 채 계획되어진 대부분의 아파트 평면들은 획일적이고 규격화된 형태들로, 규모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그다지 변화되지 않은 채 공급되어지고 있다.

* 정회원, 가야대학교 실내디자인학과 전임강사

현재 아파트는 입식위주의 생활을 수용하게 계획되어져 있으나 전통생활양식의 지속성으로 공간사용에 대한 불합리한 점이 대두되고 있다. 서구화된 평면은 전통가사작업을 수용할 기능을 배려하지 않고 있으며, 그 외의 가사작업도 일정한 공간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가사작업의 주담당자인 주부의 사회진출이 빈번해짐으로써 가족구성원의 협조적인 가사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산발적인 가사작업 동선의 집중화가 이루어질 공간을 필요로 하고 있다.

후면 베란다의 실내와 실외를 연결하는 전이적 성격의 공간으로 아파트 배면에 배치되어 부엌과 연결되는 가사작업상 중요한 공간이다. 일반적으로 후면 베란다는 세탁과 생활용품의 수납장소 및 좌식·습식 성격의 비일상 작업이 행해지는 서비스 공간으로 효율적인 기능성이 요구되고 있으나, 그 역할이 제대로 인식되지 못한 채 계획되어져 공간의 손실뿐 아니라 가사작업의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파트 거주자를 대상으로 후면 베란다에서 유발되는 행태를 파악하고, 비치된 물건·공간 사용에 대한 인식과 후면 베란다의 필요성, 만족도 등을 조사 분석하여, 후면 베란다의 이용실태를 규명함으로써 다양한 거주자의 주요구와 라이프 스타일에 부응되는 가사작업공간을 계획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1. 후면 베란다에서 유발되는 행태는 개인적 속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2. 후면 베란다의 가사물품의 보유현황은 어떠한가?
3. 후면 베란다의 수납 보조시설물의 종류는 어떠한가?
4. 후면 베란다 공간에 대한 인식, 필요성, 만족도는 어떠한가?

2. 이론적인 배경

1. 후면 베란다의 전통적인 해석

전통적인 가사작업공간은 실내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실외인 마당에까지 공간의 사용범위가 연장되어 지는데, 한정된 실내가 주생활공간인 아파트는 실내와 실외를 이어주는 베란다가 전통주택의 마당의 기능을 대신해 주고 있다. 전통주거 공간은 유교사상의 영향으로 각 공간의 사용자가 고정되었으며, 가사작업공간과 가사에 필요한 수장공간은 여성공간인 안채를 중심으로 전개되어졌다. 안채의 안마당은 내부공간에서 수용이 불가능한 주거기능의 많은 부분을 수행하므로써 반내부적 공간 개념으로 인식되어져 왔을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가사작업공간으로 활용되었으며, 관혼상제의 발생지 수행장소, 음식조리공간의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윤세웅, 1996) 전통주거에서 기본적인 취사공간은 부엌이었으나 담배수시설이 되지 않은 공간의 특성상 안마당에 있는 우물가에서 물과 관련된 작업 즉 급수, 음식재료 씻기, 설거지와 세탁행위가 동시에 이루어졌다. 전통음

식의 특성인 저장식품의 발달로 안채의 마당에는 장독대라는 특수한 장소가 배치되었다. 따라서 부엌의 문도 가사작업과 관련된 장소의 접근이 용이하게 앞, 뒤 방향으로 나있는 것이 보통이다.(박선희, 1991) 안채의 수장공간은 안방에는 도장, 벽장, 다락, 부엌에는 찬방, 배선실, 안방보조용으로는 뒤주, 곡간, 광이 있었고, 그 외에도 헛간, 창고 등이 안마당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다.(하중환, 1996) 이와 같이 전통주거에서도 다양한 수납공간이 존재했으며 수납물품의 종류에 따라 분류되어 각기 다른 장소에서 보관되었고 그 명칭들도 다양하였다.

이와 같은 전통주거공간에서는 안채가 중심이 되어 가사작업공간과 가사에 필요한 수장공간이 배치되어 있었으며 이를 오늘날 아파트의 평면에 대응시키면 부엌을 중심으로 후면 베란다까지 주부들의 공간으로 가사작업영역이 형성되어져 있다. 그러나 현재 아파트의 가사작업공간은 전통의 생활양식이 남아 있는 우리의 주생활 문화와 맞지 않아 공간사용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조창기의 아파트는 전통적인 생활양식에 근거하여 각 방은 재래식 온돌구조로 난방과 취사가 분리되지 않은 아궁이구조를 사용하였으며, 침식이 분리되지 않은 전통적인 안방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는 상태였다.(이중우·손광제, 1995) 그러나 진보된 설비 기술이 도입되면서 취사를 분리시켜 입식생활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평면의 발달로 공간의 활용도가 점차 높아지면서, 기능성이 강화되었다. 또한 과거 아파트에 대한 인식이 바뀌지면서, 오늘날 보편화된 주거 유형으로 널리 보급되고 있다. 그러나 획일화된 아파트는 거주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응하여 개조·변경되고 있으며, 과거의 주거습관 및 주거의 보수성이 아파트개조 요인 중 하나로 작용되고 있다.(이우룡, 1989) 이는 전통 생활양식과의 관계를 오늘날에도 전혀 배제시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특징적인 요소로 지목할 수 있다.

2. 후면 베란다의 활용

전통주거공간에서의 가사작업공간은 실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외부인 마당에서도 작업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생활영역이 실내로 국한된 아파트는 외부공간의 기능을 수용할 공간이 필요하게 되었다.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가사작업은 편리함과 기능성을 추구하게 되었다. 이에 부응되는 가사작업공간이 60년대 후반부터 다용도 실이나 후면 베란다 형태로 점차적으로 생겨나기 시작하였으나 소규모 아파트에서는 후면 베란다의 배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반면 중대형 아파트는 다소 여유있는 면적으로 공간의 형성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조창기에 건립된 아파트의 후면 베란다는 가사작업의 수행을 위한 시설이 전혀 설치되지 않고, 그 폭이 1m이하로(대구 성당 시영아파트는 0.8m로 되어 있었다) 기능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 면적에 대한 서비스 제공의 공간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 후 70년대에 들어와서 아파트의 수요가 늘어났고, 소비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평면이 개발되면서 후면 베란다도 가사

작업공간으로서 효율성과 기능성이 점차 인식되어 그 폭도 넓어졌다. 80년대에 건립되어진 곳의 폭은 1.2m로 나타나고 있으며, 90년대에 건립되어진 곳의 평균폭도 1.5m로 점차 넓어지고 수전이 설치되어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초창기와는 달리 후면 베란다가 가사 작업공간으로서 변용되고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아파트의 가사작업은 주로 부엌과 가사보조공간인 후면 베란다에서 이루어져 있다. 공동 세탁장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우리네 아파트구조는 후면 베란다에서의 세탁행위가 불가피 하나 이에 대한 공간 기능성의 배려가 미비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뚜렷한 사계절, 입·좌식생활의 혼용, 전통적인 생활양식 등으로 다양한 물품의 보관이 가능한 수납공간을 필요로 하고 있으나 한정된 아파트의 수납 공간으로 후면 베란다에서 일부가 보관되어 있다. 전통식품의 특성상 저장식품과 부엌에서 못다한 음식 준비와 조리도 후면 베란다에서 행해지고 있다. 이와 같이 후면 베란다에서는 세탁, 수납, 취사보조 등 다양한 행위가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유발되어 지고 있다.

3.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표 1> 후면 베란다의 현황

조사대상 아파트	주택규모 (pv)	후면베란다 규모(m ²)	변의 길이(mm)	
			A(a1+a2)	B(b1+b2)
범물 보성	49	6.475	3900 (1250 + 2650)	2000 (500 + 1500)
범물 청구	49	5.275	3900 (1400 + 2500)	1500 (450 + 1050)
범물 창신	33	3.413	2730	1250
범물 영남	32	4.540	3200 (1200 + 1700)	1700 (450 + 1250)
지산 보성	33	3.673	2350 (960 + 1400)	1900 (600 + 1300)
대덕	49	6.758	4350 (900 + 3450)	1950 (500 + 1450)
	32	4.635	3100 (900 + 2200)	1850 (500 + 1350)



<그림 1> 후면 베란다의 평면

연구대상은 1990년 이후 대구시 수성구에 건립된 아파트로 한정하였다. 연구대상 아파트의 평면적 특징은 중앙집중형 난방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출입형식은 후면 베란다에 있는 계단홀형이고, DK형 아파트인 동시에 부엌과 후면 베란다에 연결된 곳으로 제한하여 선정하였다. 대부분 후면 베란다에 배치되어 있는 계단식홀 아파트는 3침실형인 분양면적 30-35평형대와 4침실형인 분양면적 40-49평 대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표집하였다. 후면 베란다의 공간적 특성은 세탁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콘센트와 수전이 있을 뿐 아니라, 물을 사용하는 좌식작업을 고려한 수전이 추가로 설치되었으며, 가스 계량기에 연결된 관에는 부엌외에도 후면 베란다에 가스 레인지 설치가 용이하게 되어 있었다. 또한 아파트의 규모가 클수록 후면 베란다의 면적이 넓어졌고, 조사대상 아파트 중 한곳을 제외한 나머지 아파트 후면베란다의 형태는 'L' 자로 선반이나 싱크대를 설치할 수 있게 부분적으로 외부에 돌출되어 있었다.<그림 1><표 1>

자료수집방법은 설문지를 이용한 질문지법으로 실시되었고, 그 시기는 1997년 12월 한달 동안 본 대학에서 실내디자인을 전공하고 대구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사전 교육시켜 담당하게 하였다. 설문지는 주부를 대상으로 총 230부를 배포하여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누락된 것을 제외하고 208부를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2. 조사도구 작성 및 자료분석방법

후면 베란다의 이용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자가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연구문제에 적합한 문항을 작성하였다. 조사도구의 내용은 1) 조사대상자의 개인적 속성 2) 공간사용행태-세탁행위, 수납행위, 기타행위, 가사용품의 보유현황, 냉장고의 위치와 전용냉장고의 필요성, 수납보조 시설물의 설치현황 3) 후면 베란다에 대한 인식, 필요성, 만족도 등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조사대상자의 후면 베란다의 물리적인 특성은 일반적 사항 중 주택규모로 분석하였고, 행태적인 특성은 주부의 연령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변인에 따른 공간사용 행태의 차이를 탐구하였다.

조사된 자료의 분석은 SPSS/PC program을 이용하였고,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고 t-test, One-way Anova, χ^2 점정 등을 실시하였다. 각 연구목적별 분석기법은 다음과 같다.

-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사용하여 빈도, 백분율을 알아보았다.
- 2) 후면 베란다의 사용 행태가 주택규모·주부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세탁행위, 수납행위, 기타행위, 그 외 냉장고 위치와 전용냉장고의 필요성, 수납보조시설물의 설치현황과의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 3) 후면 베란다 공간의 성격을 파악하고자 가사용품의 배치품목에 대한 보유현황, 인식정도, 후면 베란다의 필요성을 살펴보기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 4) 후면 베란다에 대한 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세탁·수

납공간, 길이, 폭과 주택규모와는 t-test, 주부의 연령과는 One-way Anova를 실시 하였다. 만족도 측정은 매우 불만족 할 때 1점, 아주 만족 할 때를 5점으로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다.

4. 조사결과 및 논의

1. 조사대상의 일반적 사항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을 살펴보면 남편의 직업은 전문·기술 직 관련종사자가 40.9% 가장 많았고, 가구당 월수입은 200만원 이상이 60.6%이었다¹⁾. 주부의 직업 분포는 전업주부가 61.5%, 직업을 가진 주부가 38.5%로 나타났으며, 주부의 연령은 20대가 11.1%, 30대가 45.7%, 40대가 29.3%, 50대가 13.9%로 젊은 연령분포를 보이고 있다. 부부의 학력을 보면 남편의 경우 대졸이 62.0%, 대학원졸 20.2%로 대학졸 이상이 82.2%이었고, 부인의 경우 대학졸 이상이 64.5%로 고학력의 형태로 나타났다.

<표 2> 조사대상자의 개인적 속성

N = 208 (%)

변인	항목	빈도	변인	항목	빈도
주부 학력	중졸	12 (5.8)	세대주 학력	중졸	4 (1.9)
	고졸	62 (29.8)		고졸	33 (15.9)
	대졸	121 (58.2)		대졸	129 (62.0)
	대학원졸	13 (6.3)		대학원졸	42 (20.2)
주부 직업	전문직·자본가	18 (8.7)	세대주 직업	전문직·자본가	85 (40.9)
	관리직	9 (4.3)		관리직	28 (13.5)
	사무직	7 (3.4)		사무직	37 (17.8)
	판매직	13 (6.3)		판매직	18 (8.7)
	서비스직	26 (12.5)		서비스직	24 (11.5)
	무직	128 (61.5)		1차산업	2 (1.0)
	기타	7 (3.4)		무직	4 (1.9)
주부 연령	20대	23 (11.1)	가족수	2명 이하	22 (10.5)
	30대	95 (45.7)		3명	42 (20.2)
	40대	61 (29.3)		4명	90 (43.3)
	50대이상	29 (13.9)		5명	39 (18.8)
				6명 이상	14 (6.7)
수입	150이하	35 (16.8)	자녀수	1명	41 (19.8)
	150~200	47 (22.6)		2명	110 (53.1)
	200이상	126(60.6)		3명	30 (14.2)
				4명이상	27 (12.9)
소유 형태	자가	160(76.9)	가족 주기	가정형성기·양육	50 (25.0)
	전세	44 (21.2)		초등교육기	44 (21.2)
	월세	4 (2.0)		중등교육기	53 (25.5)
주택 규모	30평	113(54.3)		자녀 성인기	62 (28.4)
	40평	95 (45.7)			

가족수는 4명 43.3%, 3명 20.2%, 5명 18.8%고, 자녀의 수는 2명 53.1%이고 1명 19.8%, 3명 14.2%를 차지하여 대부분이 핵가족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주거관련적 속성을 보면 소유형태는 자가 76.9%,

전세 21.2%, 월세 2.0%이며, 평면의 규모는 30평형대 54.3%, 40평형대 45.7% 순으로 나타났다.

2. 후면 베란다의 활용도

후면 베란다에서 유발되는 행위를 세탁행위·수납행위·기타행위로 분류하여 일반적 사항중 주택규모, 주부연령과 교차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세탁행위를 중심으로 후면 베란다의 활용도를 분석한 결과 손세탁장으로 사용시 주택규모와 주부의 연령별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낸 반면, 세탁물 말리기, 세탁기 이용장소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후면 베란다는 손세탁 작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규모가 클수록, 주부의 연령이 많을수록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탁물 말리기는 햇볕이 많이 들어오는 앞 베란다는 사용하나 작업의 동선의 편리함과 아파트 미관의 이유 등으로 후면 베란다도 건조장소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또한 응답자의 대부분인 90.9%가 후면 베란다에서 세탁기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공간의 성격을 강하게 표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통가옥의 안마당 기능의 일부를 수행하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

거주자의 수납행위를 분석한 결과 자주 사용하는 물건의 보관이 주부의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가 나타났으며, 마늘, 쌀, 양파, 감자 등의 식품류 보관이 80%로 부엌과 인접한 가사작업 보조공간의 성격이 잘 반영되어 있다. 남향 아파트를 선호하는 거주자의 성향으로 아파트의 전면 베란다는 햇볕이 잘 들어 대부분의 장·된장독이 있으나, 햇볕이 거이 들지 않는 후면 베란다에서의 보관도 35%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생활양식의 변화와 저장기술의 발달로 식품저장법의 인식이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기타행위에서는 빨래 삶기, 냄새심한 요리하기, 장시간 끓이는 요리하기가 평면 규모에 따라 유의한 차가 나타났으며, 채소 다듬기, 빨래 삶기, 냄새심한 요리하기가 주부의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를 보이고 있다. 그 외 바닥이 습식작업(물을 사용하는 작업) 위주로 되어있어 다림질, 세탁물 개기, 가계부 정리, 재봉일 등은 하지않는 것으로 응답이 나타나 표에서 제외시켰다. 채식위주의 전통음식문화 습관은 오늘날 식생활의 변모에도 불구하고 김치를 손수 만들겠다는 57.2%로 그 행위도 연령이 높을수록 좌식작업을 선호하여 후면 베란다에서 채소 다듬기를 많이 하고 있다. 입식작업대에서 보다는 좌식작업 패턴을 선호하는 높은 연령대에서 후면 베란다에서 채소를 다듬는 행위가 많아지며, 부엌의 싱크볼에서 씻지 못하는 큰그릇 등을 씻기도 60.0%로 많은 거주자들이 후면 베란다는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평면의 규모가 클수록 후면 베란단에 가스 레인지 설치가 55.4%로 빨래 삶기, 냄새가 심한 요리하기, 장기간 끓이는 요리하기와 연관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공간구조 특성상 습식작업(물을 사용하는 작업)은 가능하나, 그 외의 작업을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가사작업 전용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수정·

1)1997년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 평균소득은 2,287,300원이었다.

통계청, 도시근로자 가계수지동향, 경제기획원, 1998.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의 보관장소로 적합한 곳은 부엌 1.9%, 앞베란다 6.7%, 후면 베란다 83.7%, 기타 7.7%로 대부분이 후면 베란다에서 보관되어지길 원하고 있다.

<표 3> 거주자 속성별 공간의 활용도

변인		주택 규모		주부 연령				횡계	
		30평형대	40평형대	20대	30대	40대	50대		
세탁 행위	손세탁 작업장	한다	74(63.8)	73(79.3)	13(56.5)	59(63.4)	49(80.3)	26(83.9)	147(70.7)
		안한다	42(36.2)	19(20.7)	10(43.5)	34(36.6)	12(19.7)	5(16.1)	61(29.3)
		통계값	$\chi^2 = 5.989^*$ df=1		$\chi^2 = 9.918^*$ df=3				
	세탁물 말리기	한다	46(39.7)	47(51.1)	10(43.5)	35(37.6)	30(49.3)	18(58.1)	93(44.7)
		안한다	70(60.3)	45(48.4)	13(56.5)	58(62.4)	31(50.8)	13(41.9)	115(55.3)
		통계값	$\chi^2 = 2.712$ df=1		$\chi^2 = 4.627$ df=3				
	세탁기 이용장소	한다	105(90.5)	84(91.3)	21(91.3)	82(88.2)	56(91.8)	30(96.8)	189(90.9)
		안한다	11(9.5)	8(8.7)	2(8.7)	11(11.8)	5(8.2)	1(3.2)	19(9.1)
		통계값	$\chi^2 = 0.736$ df=1		$\chi^2 = 1.562$ df=3				
수납 행위	자주사용하는 물건보관	한다	53(45.7)	50(54.3)	3(13.0)	49(52.7)	34(55.7)	17(54.8)	103(49.5)
		안한다	63(54.3)	42(45.7)	20(80.0)	44(47.3)	27(44.3)	14(45.2)	105(50.5)
		통계값	$\chi^2 = 1.538$ df=1		$\chi^2 = 13.909^*$ df=3				
	자주사용하지 않는 물건보관	한다	60(51.7)	38(41.3)	11(47.8)	42(45.2)	34(55.7)	11(35.5)	98(47.1)
		안한다	56(48.3)	54(58.7)	12(52.2)	51(54.8)	27(44.3)	20(64.5)	110(52.9)
		통계값	$\chi^2 = 2.235$ df=1		$\chi^2 = 3.650$ df=3				
	식품류 보관	한다	93(80.2)	75(81.5)	18(78.3)	78(83.9)	50(82.0)	22(71.0)	168(80.0)
		안한다	23(19.8)	17(18.5)	5(21.7)	15(16.1)	11(18.0)	9(29.0)	40(19.2)
		통계값	$\chi^2 = 0.060$ df=1		$\chi^2 = 2.642$ df=3				
저장식품 보관	한다	46(39.7)	27(29.3)	10(43.5)	31(33.3)	22(36.1)	10(32.3)	73(35.1)	
	안한다	70(60.3)	65(70.7)	13(56.5)	62(66.7)	39(63.9)	21(67.7)	135(64.9)	
	통계값	$\chi^2 = 2.393$ df=1		$\chi^2 = 0.971$ df=3					
기타 행위	채소다듬기	한다	46(39.7)	38(41.3)	3(13.0)	39(41.9)	29(47.5)	13(41.9)	84(40.4)
		안한다	70(60.3)	54(58.7)	20(87.0)	54(58.1)	32(52.5)	18(58.1)	124(59.6)
		통계값	$\chi^2 = 0.579$ df=1		$\chi^2 = 8.562^*$ df=3				
	부엌에서 못 씻는 것 씻기	한다	68(58.6)	58(63.0)	15(65.2)	60(64.5)	33(54.1)	18(58.1)	126(60.6)
		안한다	48(41.4)	34(37.0)	8(34.8)	33(35.5)	28(45.9)	13(41.9)	82(39.4)
		통계값	$\chi^2 = 0.420$ df=1		$\chi^2 = 1.965$ df=3				
	발래 삶기	한다	36(31.0)	56(60.9)	5(21.7)	37(39.8)	34(55.7)	16(51.6)	92(44.2)
		안한다	80(69.0)	36(39.1)	18(78.3)	56(60.2)	27(44.3)	15(48.4)	116(55.8)
		통계값	$\chi^2 = 18.514^{***}$ df=1		$\chi^2 = 9.421^*$ df=3				
냄새 심한 요리 하기	한다	38(32.8)	67(72.8)	5(21.7)	46(49.5)	39(62.9)	15(48.4)	105(50.5)	
	안한다	78(67.2)	25(27.2)	18(78.3)	47(50.5)	22(36.1)	16(51.6)	103(49.5)	
	통계값	$\chi^2 = 32.950^{***}$ df=1		$\chi^2 = 12.110^{**}$ df=3					
장시간끓이는 요리하기	한다	38(32.8)	46(50.0)	8(34.8)	38(40.9)	26(42.6)	2(38.7)	84(40.4)	
	안한다	78(67.2)	46(50.0)	15(65.2)	55(59.1)	35(57.4)	19(61.3)	124(59.6)	
	통계값	$\chi^2 = 6.335^{**}$ df=1		$\chi^2 = 0.471$ df=3					
중계		116(100.0)	92(100.0)	23(100.0)	93(100.0)	61(100.0)	31(100.0)	208(100.0)	

* p < .05 ** p < .01 *** p < .001

3. 가사용품의 보유현황

보유 물품은 공간의 성격을 나타내며 계획하는 근거자료가 되므로 이를 규명하기 위해서 가사용품의 보유현황을 조사한 결과 <표 3>와 같이 나타났다. 후면 베란다에는 세탁기 95.2%, 세탁용기·세제류·비누 82.8%, 세탁물 보관함 52.9%, 세탁 건조기 15.4%로 세탁에 관련된 물건의 보유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 레인지의 비치가 30.3%로 부엌에서 하기 불편한 요리·빨래삶기 등을 후면 베란다에서 함으로써 아파트 평면구조상 환기 등의 문제를 거주자 스스로 해결하려는 것으로 사료된다.

양념 저장통 65.4%, 쌀통 38.5%, 김치통 24.5%, 장독 18.3%, 식품 저장통 15.4% 비치되어 있으며, 가정 내 분리수거함이 88.5%로, 부엌의 보조수납공간 역할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곡류·양념류 등

수납공간의 부족으로 냉장이 필요치 않는 식품까지도 냉장고에 보관하므로써 대부분의 소비자는 대형냉장고를 선호하게 되어 부엌의 많은 면적을 차지하여 비합리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냉장고의 배치도 부엌에만 있다 79.8%, 부엌과 후면 베란다에 있다 20.1%로 대부분 부엌에 냉장고를 배치하고 있으나, 평면의 규모가 클수록 후면 베란다에 설치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표4 참조> 또한 장·김치·양념 등의 전용 냉장고가 필요하다 64.4%, 필요없다 33.7%로 전통·저장식품을 따로 보관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주택규모가 작을수록 전통·저장식품 전용냉장고를 필요로 하고 있었다.<표5 참조> 그 위치는 후면 베란다가 적합하다가 82.5%로 나타나고 있어, 현재는 대부분이 부엌에만 냉장고를 배치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후면 베란다에 전통주택의 장독대가 변용된 전통·저장식품 전용 냉장고의 배치가 예측되므로, 냉장고 배치가 가능한 공

간구조로 개선되어야 한다.

<표 4> 가사물품의 보유현황

N=208 (100%)

물 품	분 포	물 품	분 포
냉장고	42 (20.2)	김치통	51 (24.5)
세탁기	198 (95.2)	종독	38 (18.3)
가스 레인지	63 (30.3)	분리수거함	184 (88.5)
양념 저장통 (기름, 고춧가루, 밀가루 등)	136 (65.4)	스푼저장통 (양파, 감자, 마늘 등)	32 (15.4)
세탁용기 · 세제류 · 비누	171 (82.2)	세탁건조기	54 (26.0)
세탁물 보관함	110 (52.9)	썬통	80 (38.5)

· 중복 응답하여 합계가 100%가 되지 않음

<표 5> 거주자 속성별 냉장고의 배치장소

변인	주택규모		주부 연령				합계	
	30평형대	40평형대	20대	30대	40대	50대		
부엌	108(93.1)	68(73.9)	22(95.7)	79(84.9)	4(78.7)	27(87.1)	164(78.3)	
후면베란다	1(0.9)	1(1.1)	-	1(1.1)	-	1(3.2)	2(1.0)	
부엌과 후면베란다	7(6.0)	23(25.0)	1(4.3)	13(14.0)	13(21.3)	3(9.7)	42(20.1)	
통계값	$\chi^2=15.056^{***}$	df=2	$\chi^2=7.2036$				df=6	
총계	116(100.0)	92(100.0)	23(100.0)	93(100.0)	61(100.0)	31(100.0)	208(100.0)	

· $p < .05$ ** $p < .01$ *** $p < .001$

<표 6> 거주자 속성별 전동·저장식품 전용 냉장고의 필요성

변인	주택규모		주부 연령				합계	
	30평형대	40평형대	20대	30대	40대	50대		
필요하다	82(70.7)	56(60.8)	17(73.9)	59(63.4)	42(68.8)	20(17.2)	138(64.4)	
필요하지 않다	34(29.3)	36(39.1)	6(26.1)	34(36.6)	19(31.1)	11(35.5)	70(33.7)	
값	$\chi^2=5.120^*$	df=2	$\chi^2=4.249$				df=6	
총계	116(100.0)	92(100.0)	23(100.0)	93(100.0)	61(100.0)	31(100.0)	208(100.0)	

· $p < .05$ ** $p < .01$ *** $p < .001$

4. 수납 보조시설물의 설치현황

수납방법을 알아보기 위하여 수납 보조시설물의 현황을 거주자의 속성과 교차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별도의 후면 베란다는 필요성 설치에 따라서 주택규모와 사용자 연령과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고, 창고설치와 주택규모도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평면의 규모가 클수록, 주부의 연령이 높을수록 수납을 위하여 후면 베란다는 별도의 싱크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가스 레인지의 보유빈도와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수납을 위한 시설물이 효율적이고 기능적으로 계획되어 있지 못하여 사용자에게 불편함을 줄뿐 아니라 쾌적한 공간으로 유지되지 않고 있으므로 부엌과 같이 후면 베란�에도 입체화된 수납시설의 계획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후면 베란�에는 일반적으로 선반에 물품을 수납하고 있으며, 이는 전통가옥의 시렁이 오늘날의 선반에 대응이 가능하므로 가사에 관련된 작업 뿐 아니라 수납의 방법에서도 과거의 주생활 양식에서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표 7> 거주자 속성별 수납을 위한 보조시설물의 현황

변인		주택규모		주부 연령				합계
		30평형대	40평형대	20대	30대	40대	50대	
선반위 사용	한다	77(66.4)	57(62.0)	13(56.5)	58(62.4)	42(68.9)	21(67.7)	134(64.4)
	안한다	39(33.6)	35(38.0)	10(43.5)	35(37.6)	19(31.1)	10(32.3)	74(35.6)
	통계값	$\chi^2=0.438$	df=1	$\chi^2=1.469$				df=3
별도의 싱크대 설치	한다	27(23.3)	51(55.4)	6(17.4)	33(34.4)	21(32.8)	18(54.8)	78(37.5)
	안한다	89(76.7)	41(44.6)	17(82.6)	60(65.6)	40(67.2)	13(45.2)	130(64.9)
	통계값	$\chi^2=16.086^{***}$	df=1	$\chi^2=8.632^*$				df=3
창고	한다	28(24.1)	34(37.0)	7(30.4)	25(26.9)	19(31.1)	11(35.5)	62(29.8)
	안한다	88(75.9)	58(63.0)	16(69.6)	68(73.1)	42(68.9)	20(64.5)	146(70.2)
	통계값	$\chi^2=4.029^*$	df=1	$\chi^2=0.915$				df=3
이동식 가구	한다	19(16.4)	10(11.2)	2(8.7)	18(19.4)	5(8.5)	4(13.3)	29(14.1)
	안한다	97(83.6)	79(88.8)	21(91.3)	75(80.6)	54(91.5)	26(86.7)	176(85.9)
	통계값	$\chi^2=1.097$	df=1	$\chi^2=4.219$				df=3
총계	116(100.0)	92(100.0)	23(100.0)	93(100.0)	61(100.0)	31(100.0)	208(100.0)	

· $p < .05$ ** $p < .01$ *** $p < .001$

5. 후면 베란�의 인식 및 만족도

조사대상자의 대부분인 (96.5%)가 후면 베란�를 가사작업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91.8%가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어 아파트 거주자의 대부분이 후면 베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와는 상반되게 후면 베란�에 대한 거주자의 만족정도의 결과가 <표 7>와 같이 나타났다. 후면 베란�는 주택규모에 따라 세탁장소, 수납공간, 후면 베란�의 길이, 폭에 대한 만족도는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주부의 연령과는 별다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주택규모가 클수록 세탁·수납의 장소, 후면 베란�의 길이·폭에 대한 값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은 공간의 면적이 넓어져 다양한 기능을 공간에 내포할 수 있는 것에서 기인된다고 예측된다. 그러나 후면 베란�의 폭을 제외한 나머지가 만족도의 수준이 평균값(3.0)에 미치지 못하므로 거주자들은 공간 사용에 대해 대부분 불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8> 거주자 속성별 만족도

변인	집단	주택규모(t-test)		주부 연령(One-way Anova)			
		30평형대	40평형대	20대	30대	40대	50대
세탁장소	M	2.628	3.067	2.536	2.796	2.900	2.957
	SD	0.513	0.598	0.511	0.535	0.603	0.617
	평균	2.842					
	통계값	$t=3.36^{**}$ $F=1.066$					
수납공간	M	2.621	3.109	2.826	2.741	2.950	2.903
	SD	0.57	0.943	0.57	0.73	0.88	0.90
	평균	2.845					
	통계값	$t=4.37^{***}$ $F=0.935$					
길이	M	2.672	3.141	3.313	2.752	2.967	2.903
	SD	0.060	0.091	0.694	0.732	0.795	0.944
	평균	2.907					
	통계값	$t=4.31^{**}$ $F=1.873$					
폭	M	2.897	3.228	3.044	3.011	3.115	3.000
	SD	0.058	0.094	0.562	0.715	0.798	1.033
	평균	3.062					
	통계값	$t=3.00^{**}$ $F=0.256$					

· $p < .05$ ** $p < .01$ *** $p < .001$

5. 결론

주택내에서 발생되어지는 노동의 대부분은 가사작업이다. 이러한 행위가 발생되어지는 공간은 합리적이고 기능적인 면을 충실하게 반영하여 계획 되어져야 한다.

효율적인 가사작업 공간을 형성하기 위해 사용자의 요구와 공간 사용행태 등의 주생활양식 구조를 파악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도시의 30·40평형대의 아파트 거주자를 대상으로 후면 베란다의 공간사용행태, 가사물품의 보유현황, 후면 베란다의 인식과 필요성, 만족도를 조사·분석하여 공간의 이용실태를 규명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의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대부분이 후면 베란다를 가사작업공간으로 인식하고 필요로 하고 있었으나, 공간사용에 대해서는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규모에 대한 서비스 공간을 제공한다는 이미지에 편벽 되어 있어 후면 베란다 계획시 가사작업공간이라는 일반적인 인식이 계획에 체계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둘째, 후면 베란다는 다용도의 가사작업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다림질, 세탁물 개기, 주부만의 취미공간, 가계부 정리하기, 재봉일 등으로는 전혀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유틸리티(utility)공간의 개념과는 많은 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아파트는 입식의 가사작업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으나, 채소 다듬기, 손세탁 행위는 좌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세탁, 부엌에서 씻기 힘든 큰 그릇 씻기, 식품류의 수납, 된장·고추장·간장의 보관 등은 전통주거에서 마당에서 유발되는 행위로 그 활용도를 후면 베란다에 대입하여 해석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러한 점은 전통 생활양식이 가사작업공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를 반영하여 후면 베란다를 효율적인 가사전용공간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그 일환으로 좌식으로 행해지는 작업을 수용하기 위한 입식 싱크볼의 설치가 요구되고, 후면베란다를 실내와 실외로 분리시켜 다양한 가사작업을 수용할 수 있게 계획되어져야 한다.

셋째, 후면 베란다는 대부분이 세탁관련 용품을 많이 비치하고 있으며 그 외 취사에 필요한 물품을 수납하고 있었다. 후면 베란다에 가스 레인지의 배치 빈도는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공간의 기능확대로 그 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며, 전통·저장식품 전용냉장고의 설치도 요구되고 있다.

넷째 수납보조물로는 간이적 성격을 가진 선반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 보다 효율적이고 기능적인 수납 시설물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특히 선반은 전통주거에서 사용되었던 시렁의 변형으로 보아지므로 수납 시설물에 대한 인식은 전통 생활양식에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결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기존 아파트의 후면 베란다와 전면 베란다는 사시를 설치하여 불

법으로 개조되어 실내공간으로 사용하고 하고 있으나 묵인되는 것이 현실이며, 이러한 것은 본 연구의 제한점이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후면 베란다에서 유발되는 행위가 실내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실외에서도 가능하므로, 후면 베란다를 불법개조하지 않더라도 사용이 가능한 전용가사작업공간의 개발이 필요하며 앞으로 이에 따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겠다.

참고문헌

1. 강순주, 김상희, 1997, 현대주거학, 교문사.
2. 강영환, 1994, 집의 사회사, 웅진출판사.
3. 김진애, 1994, 우리의 주거문화 어떻게 달라져야 하나?, 서울포럼.1991
4. 박선희, 1991, 조선시대 반가의 주생활양식과 공간사용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5. 백영현, 정명섭, 1990, 조선시대 상류주택의 주생활공간 이용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6. 우동우, 윤도근, 1991, 아파트 공간 변용으로 본 거주자의 생활행태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7권1호.
7. 윤재웅, 1996, 도시 단독주택 마당의 변용에 관한연구, 한국주거학회지 7권1호.
8. 이중우, 손광재, 1995, 대구지역 아파트 평면유형의 변천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11권8호.
9. 최부현, 배정수, 1998, 대구시 공동주택의 시공간적 공급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 건축학회 대구·경북지부7권 1호.
10. 건축법규, 1981~1997년
11. C. Woods and M. Wells, 1992, Designing Your Natural House, Van Nostrand Reinhold.

<접수 : 1998. 5. 7>